금주의 법구-〈별역잡아함경〉
애욕보다 큰 것이 없고
분노보다 깊은 것이 없고
교만보다 높은 것이 없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7월 23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164호 2017년 9월 13일 수요일

광주 종교시설 중 8%만 사찰
전남지역 불교 민낯 확인하다

조계종 포교원 '광주전남 포교지도' 살펴보니

조계종이 추진 중인 전국 포교지도 완정의 시작, 광주전남 포교지도가 공개됐다. 약화된 호남지역의 교세 실상은 심각했다. 광주지역 종교시설 중 사찰은 8.7%에 불과했으며, 젊은 층이 분포한 지역에는 사찰 부족해 시설 확충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9월 2일 광주 자비신행회 나눔센터에서 '광주전남불교지도자 대중공사'를 개최했다. 포교원의 '붓다로살자' 신행혁신 운동의 첫 대중공사로 열린 이날 자리에서는 포교원 포교연구실이 진행 중인 '포교지도'가 최초로 공개됐다. '포교지도'는 전국 권역별 인구와 사찰 및 신도 현황 등을 통계자료로 표시한 것이다.

이날 발표된 '광주전남 포교지도'에 따르면 광주지역 2208개 종교시설 중 사찰은 194개로 8.7%에 불과했다. 교회와 성당을 합한 기독교에 비해서는 19%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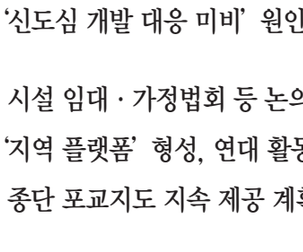
불자 수 또한 이웃종교에 비해 열세로 광주지역 불자(13만 9000여명)는 광주 인구의 9.4%, 광주 종교인구의 24%에 불과했다. 개신교 신자에 대비해 48%로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먼저 인구가 많은 지역에 사찰이 부족했다. 인구가 많은 가장 많은 북구(44만 6316명)는 전체 종교시설 753곳 중 사찰이 45곳으로 6%에 불과했다. 이 지역 교회가 339개에 달하는 것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었다. 반면 인구가 가장 적은 동구(9만 8784명)에는 65곳의 사찰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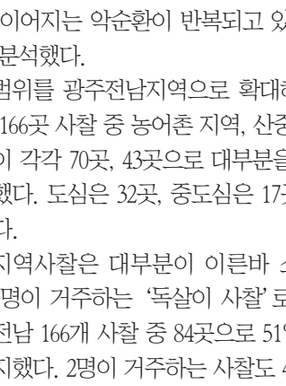
이번 포교지도에서는 사찰이 고령화 지역에 밀집돼 있는 문제도 나타났다. 앞서 사찰이 많은 동구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상회하는 고령화 지역이다. 이에 반해 15세 미만 인구가 20%로 가장 높고, 65세 이상이 8%로 가장 낮은 광산구의 경우 사찰은 27곳에 불과했다. 이 지역 교회 175곳의 15% 수준이었다.

김병주 포교원 전법팀장은 "신도심 개발에 불교계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며 "열악한 재정으로 도심포교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이 문제가 다시 신규 신도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표1〉 광주 지역 종교시설대비 사찰 수



〈표2〉 광주 인구대비 불자 수



광주 지역 불자 인구 9% 불과
2천여 종교시설 중 사찰 194곳
사찰 분포도 인구 대비 불균형
'신도심 개발 대응 미비' 원인

시설 임대 · 가정법회 등 논의돼
'지역 플랫폼' 형성, 연대 활동
종단 포교지도 지속 제공 계획

범위를 광주전남지역으로 확대해보면 166곳 사찰 중 농어촌 지역, 산중 사찰이 각각 70곳, 43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도심은 32곳, 중도심은 17곳이었다.

지역사찰은 대부분이 이른바 스님 한 명이 거주하는 '독살이 사찰'로 광주전남 166개 사찰 중 84곳으로 51%를 차지했다. 2명이 거주하는 사찰도 40개로 24%였다. 사실상 포교와 전법의 역량 발휘가 힘든 구조였다.

스님들이 전법 포교에 나선다고 하여도, 담당하는 범위가 너무나 넓은 상황이다. 인구 대비 스님의 수를 나누면 동구 지역은 스님 1인당 3187명이었지만 광산구 지역은 1인당 4만 4528명, 서구 지역은 1인당 무려 10만명이 넘게 담당해야 했다. 전법 지도법사도 전국 484명 중 광주지역은 단 1명이었다.

포교, 전법, 교육, 행정 등을 담당하는 교역직 스님들은 광주시는 평균 2명, 전남 지역은 평균 1.7명에 불과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어린이 법회를 진행하는 곳이 동구 2곳을 비롯해 총 사찰 4곳에 불과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청소년 법회도 1곳, 청년 법회도 2곳 뿐이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중공사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도출됐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 송광사 주지 진화 스님, 백양사 주지 토진 스님,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광주불교연합회장 연광 스님을 비롯해 60여 광주전남 불교지도자들은 5시간 넘게 토론을 진행했다.

가장 먼저 인구 대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사찰 외 종교활동 공간을 지역불교계가 힘을 모아 마련하기로 했다. 광주전남 지역 불교지도자들은 북구와 광산구 신행 및 수행 공간 마련을 위해 시설을 임대하고, 가정집에서 지역법회를 여는 등 실천할 수 있는 방안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또 일정지역에 몰린 사찰들이 경쟁에 내몰리는 상황을 극복하고, 사찰이 부족한 지역의 전법 포교활동을 위해 본말사를 떠나 행정구역 기준으로 '지역플랫폼'을 형성해 연대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재정적인 한계 등으로 포교당을 개설하거나 하는 방안이 급하게 이뤄지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사찰이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중공사에서의 포교지도 공개를 시작으로 조계종 포교원은 올해 말까지 전국 포교지도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10월 부산을 시작으로 창원, 의성 등지에서 열리는 대중공사서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포교연구실은 1차 통계 자료를 취합한 상태로 2차 정리 중이다.

노덕현 기자 ·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평창올림픽 성공기원 하모니" 2018평창올림픽이 1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불교계가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대규모의 문화공연을 펼쳤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는 9월 6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몰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축하 국민화합대회'를 열고, 수백여 명이 참여한 연합합창단의 '보현행원송' 공연을 대중에게 선사했다. 불교계는 이 자리서 공동협약문을 발표하고, 전국 주요사찰의 성공기원 '등 달기' 운동을 펼쳐나가기로 결의했다. 윤호섭 기자

"3국 불교, 정토세상 · 세계평화에 진력"

제20차 한중일불교교류회의
한국대회 9월 6~8일 거행

세계평화 기원법회서
전쟁 없는 세상 발원



한중일 3국 불교계의 황금유대가 올해로 20년째를 맞았다. 이를 기념하는 자리에서 3국 불교지도자들은 정토세상 구현과 세계평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와 중국불교협회(회장 쉐청), 일중한국제불교교류협의회(회장 이토 유이신)는 9월 6~8일 서울 봉은사 일원에서 제20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한국대회를 거행했다. 행사에는 3국 불교지도자 200여 명이 참석해 20년간 함께해온 황금유대 관계를 재확인했다.

3국 불교계는 9월 7일 코엑스 호텔서 20번째 공동선언문에 합의하고 △세계불교 중흥에 기여 △수행과 실천으로 정토세상 구현 △3국 우의와 연대로 세계평화 기여에 나설 것을 밝혔다.〈사진〉 특히 2018평창올림픽과 2020도쿄올림픽 2022베이징올림픽 등 동아시아에서 잇달아 열리는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기로 했다.

이에 앞서 봉은사서 봉행된 세계평화기원법회에서는 부처님전에 육법공양을 올리고, 각국의 불교의식을 봉행하며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함께 마음 모을 것을 다짐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자승 스님은 평화기원 메시지를 통해 "불안을 극복하고 인류의 평온과 세계평화를 위하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부처님 가르침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방법을 찾는 것에 해답이 있다"며 "많은 지성은 문화적 가치를 통한 인류애 회복에 주목하고 있다. 불교사상이 담고 있는 문화와 정신 회복을 위해 한중일 교류대회가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회향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자승 스님은 이어 최근 북한의 핵 · 미사일 도발로 인한 한반도 긴장상태를 언급한 뒤 "3국 불교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지혜를 모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진일보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길 바란다"면서 "한반도 내 평화를 저해하는 어떠한 행동도 결연히 반대한다. 평화를 위한 길은 서로를 적대하고 위협하는 것에 있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국 불교계는 이외에도 대회기간 동안 2018평창올림픽 성공기원 국민화합대회와 보현행원송 공연, 학술강연회, 축하만찬 등을 진행했다. 〈관련 기사 3면〉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10월 12일 공고

후보자 등록 9월 18~20일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선거가 10월 12일 오후 1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 열린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9월 6일 후보자 자격과 등록기간, 등록서류 등의 내용을 담은 제35대 총무원장 선거 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총무원장 후보자격은 승랍 30년, 연령 50세, 법계 종사급 이상의 비구다. 아울러 △중앙종회의장 · 호계원장 · 교육원장 · 포교원장 역임 △교구본사주지 4년 이상 재직 △종앙종무기관 부실장급 이상 종무원 2년 이상 재직 △중앙종회의원 6년 이상 재직 △각급 종정기관 위원장 역임 등 경력을 갖춰야 한다. 후보자 등록기간은 9월 18~2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선거인단 선출기간은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재임 중인 중앙종회의원, 법계 중덕(정덕) 이상의 승려로 각 교구 종회서 선출한 10인이 선거인단으로 등록된다. (02)2011-1865 윤호섭 기자

